

토론

「플랫폼 자본주의와 블랙박스에 갇힌 노동  
: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2024)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양근애 ■ 명지대

박미란 선생님의 발표는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를 노동연극의 계보 속에 위치시키며,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노동 환경을 한국 연극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입니다. 배달 노동과 미세노동, 알고리즘 통치와 데이터 경제라는 조건 속에서 노동이 어떤 방식으로 무대화되는지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작품이 드러내는 문제의식과 형식적 선택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가 전통적인 산업 노동의 서사와는 다른 조건 속에서 등장한 노동을 어떻게 재현하는지, 발표자께서 설정한 연구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 발표문에서 다루신 미세노동의 문제는 이 작품을 노동연극의 맥락 안에서 읽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처럼 보입니다. 플랫폼 기술이 자동화된 체계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라벨링과 같은 분절된 인간 노동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는 순간, 이 연극은 분명 노동의 문제와 접촉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극이 노동의 조건과 함께 얼굴 인식, 데이터 접근, 입양과 정체성 같은 질문들이 중심에 놓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동이 극의 중요한 상황과 배경을 제공하지만, 갈등의 동력은 데이터와 존재의 문제로 이동하는 듯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노동연극의 계보 속에 위치시키는 독법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상대적으로 덜 보이게 만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 연극은 신체, 사고, 애도의 정동 구조를 중심으로 플랫폼 자본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데이터화된 인간, 얼굴의 추출, 기술로 인한 상실과 같은 불안이 결국 신체 훼손과 죽음의 드라마라는 익숙한 문법 안에서 이해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인간의 데이터화라는 문제를 노동의 소외와 산업재해의 드라마로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고민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2.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를 2018년 초연된 <자본1: We Are the 99%!, 2021년 초연된 <자본2: 어디에나, 어디에도>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연의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이론과 일상의 접점에서 다루고(<자본1>), 글로벌 금융자본의 작동 방식과 그 은폐된 경로를 드러내는 작업(<자본2>)의 연장선에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를 놓을 때, 세 연극은 각각 다른 자본의 양태—산업자본, 금융자본, 플랫폼 자본—를 다루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연극적 진단을 축적해온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를 노동연극의 계보 속에서 분석하는 작업과 더불어, 이 연작 전체가 자본/자본주의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이번 작품의 위치가 조금 다르게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3. 발표자께서는 3장에서 인공지능이 도달하지 못하는 얼굴의 신체성을 ‘연대의 토대’로 주목 하셨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자본주의 하에서 얼굴은 이미 데이터로 정밀하게 추출되어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스템이 얼굴을 포획할수록 개별적 존재로서의 얼굴이 지닌 고유성은 소거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기술 바깥의 신체이자 인간성의 보루처럼 보였던 얼굴이, 4장에 와서는 기술을 통한 복원과 재현의 대상으로 등장하며 결국 구조 비판을 약화시키는 위협으로 강조됩니다. 발표의 논의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더 밀어붙이는 쪽인지, 아니면 기술이 야기한 존재론적 문제를 위로와 복원의 서사로 봉합하는 쪽으로 작동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3장의 낙관과 4장의 재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간극에 대한 견해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4.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노동의 형태뿐 아니라 정치적 주체 형성의 조건 역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라는 표현을 환기해 보면, 플랫폼 자본주의는 기술을 통해 인간의 관계와 가시성을 조직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조건 자체를 변화시키는 체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3: 플랫폼과 데이터>는 기술과 인간을 대비시키며 인간의 얼굴과 신체를 강조합니다.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기술은 단순한 외부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발화와 관계를 매개하고 재구성하는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극은 기술과 인간을 대립 구도로 설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조건 변화를 충분히 사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대립 구도 자체가 작품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